

문화

고향 광주 찾은 뉴욕 'Janusphere 댄스 컴퍼니' 무용수 정은정



호남예술제 입상... 광주시립무용단 주역
日·美서 다양한 단체 무용수로 활동

'고유댄스컴퍼니' 창단... '발레아트' 지도자

포러리 발레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지인의 도움으로 일본에 있는 다양한 발레단의 정보를 알아낸 후 제 프로필과 공연했던 비디오를 들고 무작정 발레단을 찾아갔죠. 오디션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발레단에서 오케이를 해줬죠.

운 좋게 시작된 일본 NBA발레컴퍼니의 생활은 2년간 계속됐습니다. '호두까기 인형' 등에 주역으로 출연하며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가던 그녀는 일본과 중국 수교를 기념해 열린 공연에 주역 무용수로 발탁됐다 중간에 낙마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

상처는 더 큰 꿈을 꾸게 했다. 현대 예술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한번 부딪쳐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1937년 문을 연 발레 스쿨인 '발레 아트'에서 학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 그녀는 이듬해 오디션을 통해 'Janusphere 댄스 컴퍼니' 무용수로 발탁돼 'Nebulous sapience' 등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20일 강동석 희망콘서트... 아나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무대에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은 지난 2003년부터 글라스 스미스클라인(GSK)과 희망콘서트를 열고 있다. 2009년부터 10년동안 만성 간염 환자와 가족들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전했던 그는 2010년부터는 국제 구호기구인 기아대책과 함께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나누려고 한다.

2012 GSK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강동석의 희망 콘서트가 오는 20일 오후 6시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체코를 대표하는 아나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무대에 서는 점이 눈에 띈다. 스메타나, 드보르작과 함께 체코의 3대 작곡가로 불리는 아나체크의 이름을 딴 아나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1954년 창단 후 해외 공연과 음반 작업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단체다. 지휘봉은 지난 2005년부터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테오도르 쿠차가 맡는다.

2000년부터 만성 B형 간염 퇴치 명

예대사로 위촉된 후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강씨는 연세대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서울 스프링실내악축제 음악감독으로도 활동중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블라우',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다. 강동석은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과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을 협연한다.

한편 이번 콘서트 수익금은 행복

한 홀스쿨과 별빛학교를 위해 쓰여진다. 티켓가격 7만원, 5만원, 3만원. 문의 02-720-39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나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강동석

“최고의 무용수들과 한 무대 행복
믿고 따라주는 학생들에 늘 감사”

광주 출신 발레리나 정은정(34)씨에게 뉴욕은 기회의 땅이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뉴욕으로 날아가게 지난 2008년. 언어와 동양의 발레리나라는 한계는 자주 그녀를 주저 앉혔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정씨는 2012년 현재 발레 선생님이요, 컨템포러리 무용단의 무용수로, 그리고 자신이 만든 무용단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자기만의 길을 조금씩 개척하고 있다. 잠시 숨고르기를 위해 2년 반만에 한국을 찾은 정씨는 15일 만났다.

“아직 큰 것을 이룬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앞이 보이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운이 따라줬고, 또 노력하다 보니 성과를 내기 시작한 듯합니다. 최고의 무용수들과 한 무대에서 춤추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또 저를 믿고 따라주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 늘 감사하죠.”

정씨가 발레를 시작한 건 중앙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때 호남예술제에서 입상하기도 했던 정씨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크게 두각을 나타낸 경우는 아니었다. 조선대학교 무용과와 교육대학원을 거쳐 광주시립무용단에 입단한 그녀는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호두까기 인형', '서동요' 등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주역무용수라는 자리에 만족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또 다른 변화를 시도했다. 2006년 일본행을 감행한 것. 일본에서의 활동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지만 일단 무작정 일본으로 떠났다.

“무용단 생활에 조금 지쳐 있기도 했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정형화된 클래식 발레도 좋지만 표현의 폭이 훨씬 넓은 컨템

다양한 작품을 공연했다. 또 '노마드 컨템포러리 발레' 등 다양한 단체의 객원무용수로도 활동중이다.

“규정된 틀 안에서 움직이는 클래식 발레에 익숙하다 보니 그 틀을 벗어버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내 스스로는 나름대로 몸을 풀고,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은 몸을 쓸 줄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새롭게 바닥부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정씨는 학생에서 출발해 지금은 '발레 아트'에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시티 발레단의 주역무용수, 러시아 출신 무용수 등 경쟁한 강사들 사이에서 '동양인 발레리나'가 인정을 받는 어려운 게 현실. 초창기에는 너무 힘들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유댄스컴퍼니'(Go you dance company)를 창단하고 '춘향전'을 재해석한 작품 '스토리 텔링'을 무대에 올렸다. 무용단 이름 '고유'는 한국의 뿌리를 의미하는 '옛것'의 의미와 '당신에게 간다'는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의 춤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담겨있다.

“좋은 선생님은 무용수를 돋보이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무용수로 뛰고 있지만 발레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에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제 자신을 더 단련시키는 게 필요하죠.”

11월 미국으로 돌아가는 정씨는 Janusphere 댄스 컴퍼니의 창작 신작과 산타바바라에서 공연하는 '호두까기 인형'에 출연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북한어린이에게 생명을

광주YWCA 창립 90주년
분유보내기 기금마련 음악회
23일 광주문예회관

광주 YWCA(회장 최양남) 창립 90주년 기념 음악회가 오는 23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북한 어린이 분유 보내기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지난 1975년 창단된 광주 YWCA합창단(단장 배순옥)의 스무번째 정기연주회로 꾸며진다.

광주 YWCA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꽃타령' 등을 선사하며 CBS소년소녀합창단, 로템나무 목사합창단, 익투스코랄 합창단 등이 찬조출연한다. 또 메조소프라노 강양은씨는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를 선사한다.

특히 팔레스트리나 가수 임형주(사진)의 특별 무대가 눈길을 끈다. UN 평화메달을 수상한 임형주는 이번 무대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10장의 음반 수록곡들을 들려준다.



한편 광주 YMCA는 0세~만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국 53개 회원 Y와 함께 분유 4톤 분량(56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티켓 2만원권 한장이면 1명이 15일간 먹을 수 있는 분유를 보낼 수 있다. 문의 062-609-13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인 박용철의 삶, 영상과 춤으로
무용극 '용아' 18일까지 광산문예회관

“떠나가는 배” 등 서정적 시들을 남긴 광산 출신 시인 용아 박용철(1904~1938·사진)의 작품 세계가 시 무용극으로 탄생했다.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광산문예회관에서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극단 아트컴퍼니원은 여순심(광주여대 교수)씨가 이끄는 '숨DANCE'과 작업한 작품 '용아'(16~18일 오후 7시30분)를 공연한다.

이번 작품은 용아의 인생을 모티브로 그의 시에서 나타난 서정과 상처,

사랑과 이별, 삶과 죽음, 그리고 자신의 삶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넘어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의미를 영상과 춤의 언어로 표현해 냈다.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형식의 공연으로 극단 대표인 원광연씨가 연출을 맡았다. 문의 062-960-89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도시험, 내일 '폴리 라운드테이블' 포럼

광주문화도시험의회는 17일 오후 3시 광주NGO 센터 대강당에서 '광주 폴리(Folly)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류재현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이효원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장희천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정선희 작가 등이 참여해 폴리 사업을 위한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김지은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ukjebocheonggi (국제보청기) celebrating 30 years. Features a 30% OFF SAL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본점 062) 227-9940, 목포점 061) 262-9200, 서울점 02) 765-9940, etc.

Advertisement for Geumsoo Hotel (금수장호텔) celebrating 30 years. Features a 30% OFF SALE and contact information: 예약문의 (062) 525-2111. Also includes photos of hotel rooms and dining areas.